

욕망의 무속적 상상력과 처리방식

김동규(ACKR, 서강대학교)

키워드 및 주제들

- I. 정치적 레토릭 속 무속: 애매함과 낯섦
 - 1. 근대적 분류체계와 무속: 건진, 천공, 명태균의 지칭과 무속의 범주
 - 2. 개념과 해석틀: 문화의 쓰레기통과 미신
 - 3. 무속의 역동성과 혼종성: 개념들의 경합과 무속 세계의 재구성: 운세와 신령
- II. 욕망의 무속적 상상: 욕망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식
 - 1. 욕망에 대한 종교적 해석들: '욕망'인가 '욕망들'인가?; 초월과 일상/정신과 물질
 - 2. 욕망을 통제하는 기호: 삼재/운, '무당은 운을 보는 사람이다.'
 - 3. 불확실성의 존재로서 인간: 경합하는 욕망과 무속적 타협

정치적 레토릭 속 무속



그것이 알고 싶다 1424회

스승 & 법사 윤대통령 무속의 그림자



하늘이 점지해 주신, 숨어있던 진짜 상왕 납시오/작가의 변

이준희 만평,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18>
여성경제신문, 2015년 2월 20일

‘악어와 악어새?’ 정치인과 무속인 밀착 관계

박형준 기자 ctzp@ilyosisa.co.kr

등록 2024.11.18 11:59:59

조회 1506회

댓글 2개

🔗 🖨️ 📧 📱 📺 + -

명태균 입서...그래서 용산 갔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공개된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서 또 무속이 언급됐다. “무속이 국가 정책 결정 및 외교에까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처음이다. 명씨는 “광화문에 가면 뵈진다고 했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 부부는 용산·한남동에 안착했다.



명태균씨와 무속인 전공 ©유투브



'건진법사' 전모 씨가 참여했던 '소 가족 굿판' 행사

"마치 불교 행사처럼 보이지만 소의 가족을 벗겨 전시하고, 10여 마리나 되는 돼지 사체를 무대 앞에 전시해 놓고 치러진 무속행사에 가까웠다"; 2018년 9월 9일 일광조계종 주최, '2018 수륙대재'..살아있는 소 가족 벗기는 굿판'

"이들의 이름이 적힌 등은 일반적인 불교행사에 등장하는 연등이 아니"라며 "삼족오로 보이는 새의 문양과 태극무늬가 그려진 생소한 형태의 등"이라고 설명했다. 공인된 불교보다는 무속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https://www.bing.com/videos/riverview/relatedvideo?q=%ea%b1%b4%ec%a7%84%eb%b2%95%ec%82%ac+%ea%b5%bf&mid=AC997226A7A1B2CF18CFAC997226A7A1B2CF18CF&FORM=VIRE>

건진법사 '정치브로커 의혹' 검찰 수사도
35년 차 무녀 "여당·야당 아닌 무당인데"
무속인 협회 "경제적 타격도" 성명 고민



"예로부터 '여당도 야당도 아닌 무당'이라는 말이 있다"며 "정치는 멀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무속인 전체를 욕보였다" (무녀, 최혜숙)

박지훈의
뉴스in
사이다

저녁 다시보기
2024/12/20

플버전

특기보살

박지훈의
뉴스in
사이다

"장성 출신 무속인 노상원...김건의 노렸나?"
"HID 요원, 집회 테러 등 분란전 획책 의심"



오마이TV

"김전희 무속 논란
무섭고 섬뜩"

"최순실이 울고 있을 것"





일요신문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0199

“(자신의 강연이) 너무 좋아서 인터넷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무속 프레임’으로 매도당한다”

“무속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치사스럽다”

“최순실을 한번 작업해서 덕을 본 걸 가지고 나를 거기에 끼워 맞춘다”

최순실 스캔들 속 레토릭

- <https://www.youtube.com/watch?v=1gVXdJJQN0c>
- 2016년 <미디어 오늘>, 최순실 곁을 봐주는 무당, 정윤희 곁을 봐주는 무당, 박근혜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곁을 한 적이 있다:
- <매일경제, 2016년, 10월 25일> “자기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 “우주의 기운” 등의 ‘무속적 발언’으로 평가
- 최순실 일가의 개명도 무속적(연합뉴스 16년 10월 26일): 김건희의 개명도 무속적?
- ‘팔선녀’와 ‘오방낭’의 무속 관련설
- “‘종교’로서 자유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 “무속 비판인 듯 하면서도 무속 자체에 대한 비판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차이점 및 동일성

- 무속에 대한 레토릭이 시위 주도의 젊은 층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 탄핵사유의 차이: '국정 농단'과 '계엄'
- 이념이나 가치 지향적 경향 (기성종교에 대한 태도)에 대한 변화의 지표로 이해할 수도.
-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현한 비단아씨
- 그러나, 여전히 '정통적'인 종교의 범주에서 벗어난 행위들을 '무속'적으로 정의하며, 역술인/한학자(이세민을 '한학자' 혹은 '역술인'으로 표기하던 보도 매체)를 '무속'으로 분류한다.

‘무속’ 분류의 문제

- ‘낯섦’과 ‘애매성’을 길들이는 방법:
 - 1. ‘무속’과 근대성: 종교와 예술; 상상 속 ‘고대’의 종교 혹은 ‘미신’
 - 2. 무당 네이밍하기: 스승, 법사, 무당, 지모, 산이, 화랭이, 단골, 보살, 심방 --> ‘무당’
 - 3. 외부인에 의한 네이밍: 1927년, ‘무속’과 1990년대 초 ‘무속인’ vs. 무속의 내적 구성 요소들의 역동성과 혼종성(운세와 신령, 풍수)
 - 4.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mov_pg.aspx?CNTN_CD=ME000097649
(4:50~6:30) : 종교와 정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문제
- ‘문화의 쓰레기통’론: 미신, 그리고 여전히 애매한 것들의 처리방식
- ‘오방낭’, ‘팔선녀’, ‘수륙대재’
- "이들의 이름이 적힌 등은 일반적인 불교행사에 등장하는 연등이 아니"라며 "삼족오로 보이는 새의 문양과 태극무늬가 그려진 생소한 형태의 등"이라고 설명했다. 공인된 불교보다는 무속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2018 수륙대재, 일광조계종)

욕망과 종교: 통제 양상들

욕망에 대한 다양한 종교적 태도

- 욕망의 부정

☞ 욕망의 통제는 자신의 ‘생존’이라는 욕망을 절제하는 것으로서, 종교적 세계관이 구현된 행위의 코드 (행위 규범)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 대표적인 개념적 은유로서, ‘금욕’과 절제, 유교의 ‘단사표음(簞食瓢飮)’

☞ “나는 류영모의 금욕적 삶이 생명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 때문임을 발견했다. 류영모에게 인간의 식욕과 성욕은 타자의 생명을 대상화하고 착취하게 만드는 근원적 동인이었다. 류영모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거부한 것은 종교적 수행의 차원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강한 생명에 의해 잡아먹히는 약한 생명이 처한 죽음의 현실성과, 진정한 생명은 식욕과 성욕에 기초한 몸의 생명과는 다른 정신적 생명이라는 각성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안규식, <교수신문>,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746>)

☞ 욕망의 부정과 육체의 부정, ‘물질주의적 욕망’



(무속인 비탄아씨)

군인 명단 가져와 운세 물어봐...

노상원, 배신자 색출한다며
인터넷에 사진 찾아서 보여줘



‘비단아씨’ 국회출격...”노상원, 올 때마다 군인들 점괘 물어봐”
“노상원, 군인명단 보여주며 배신할 지 물어”

욕망을 대하는 무속적 태도

- 인간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무한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 ‘욕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보편적인 범주로서 ‘인간’보다는 충족가능한 다양한 욕망들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 대부분의 종교가 욕망을 통제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속 역시 욕망을 조절하는 장치(기호)가 있다: 사주와 팔자, 운세, 삼재 등
 - 범주로서 ‘인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은 무속적 욕망 조절 장치와 신령의 도움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 (사주명리학과 무속의 차이)
 - ‘돈’을 매개로 계층 간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현대 한국사회(자본주의, 도시 생활 환경)에서 욕망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
- 비단아씨의 점괘: “노상원에게 더 이상 관운이 없다.”
 - 점사와 의례는 고객의 현실과 욕망의 한계를 성찰하게 만든다: 다양한 인격을 연기하는 무당의 퍼포먼스

종교학적 쟁점 및 대안(분류의 문제)

- ‘초월’과의 관계 양상에 따른 종교 유형 구분의 가능성: 신을 모시는 자 vs. 신을 부리는 자

☞ 이 사람 보기 싫은데, 점사비 돌려줄테니 돌아가라..신의 별전, 신의 매를 말고...신을 악이용하는 분이잖아..
..내 위에 사람 없고, 내 밑에 사람 없어...남을 밟고 일어서고 남을 까면서...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걸 지켰어?
내꺼 취하고 나면 손절이야....이 분한테 이를 갈면서 따라다니는 혼이 보인다 말이야...남자도 여자도....
솔직히 ‘안 봐주고 싶다’ ‘무당 아닌 무당이고’ ‘바보 돌궤다는 소리 있죠?’ 자칭 자기가 무당이네....믿음은
좋지만 악용하면 안돼. 정말 선한 마음으로 신에게 무릎꿇고 ...악이용...그래서 별전...다 잃어야 하는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신의 힘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돼...남을 속이면서 내 종자고...그에 따른 희생양도
생기는 것도 당연하지...<https://www.youtube.com/watch?v=NRauZiasRE0>

- ‘사제형 무당’과 ‘카리스마형 무당’은 동일한 종교 유형으로 분류 가능한가?
- 무속/샤머니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초월’과의 거리?
- 1960년대 최길성과 김태곤의 논쟁: 당골은 샤먼인가 아닌가?

종교학적 쟁점 및 대안(욕망과 관련하여)

- 관계망 속 존재로서 상호의존적인 인간의 존재론적 속성은 욕망들의 경합을 초래한다.
- 타자에 대한 폭력적 희생을 통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종교적 실천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예) 용왕제는 고기를 많이 잡거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의례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물고기의 눈을 보며 가지는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한 의례로 해석할 수 있다.
- 관계적 존재로서, 욕망의 실현은 타자를 전제한다. 그러나 타자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은 일종의 모순과 부조리이다. 인간의 존재론적 모순과 부조리는 전통적으로 신화와 종교의 주제였으며, 이는 서구적 근대의 인간관이 가지는 한계를 드러낸다.